

## 마인드 프리

대학교를 처음 들어왔을 때 배리어 프리 운동이 한창이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문턱을 없애자는 이야기였다. 당연히 반대할 사람은 없었으리라 생각한다. 이타적인 행위는 으레 사람들의 찬사를 받기 마련이니까. 나 또한 활동가들을 지지하며 하루 빨리 이동권이 보장되어야한다고 말은 했다.

뭘, 말은 했다. 그러나 말은 바람처럼 흩날리기 마련이다. 내심 속으로는 저런 쓸데없는 걸 왜 하지 싶었다. 장애인은 학교 구성원 중 매우 소수이지만, 전체 문턱을 뜯어 고치는 것은 막대한 비용이 든다. 따지고 보면 그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전체가 돈을 내는 불편함을 감수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전부터 학교에서 장애에 대한 교육을 받아왔지만, 딱히 와 닿지가 않았다. 장애인을 동정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라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관련 공익광고들은 그들의 처절한 삶을 동정하게끔 한다. 동정이 아니라면 그들에게 시선을 가질 이유가 딱히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당장 내 친구가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라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으로 장소를 이동하며 먹기 편한 음식들을 시켜줄 것이다. 그러나 내 주위에는 비장애인 친구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생각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기에는 당장 살아가기도 껍떡할 뿐이다. 자격증 시험과 업무가 산처럼 쌓여 있다.

장애인들을 위한 국가 복지는 따지고 보면 굉장히 가성비 떨어지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았을 때, 일이 터졌다. 어느 날부터 아버지의 오른쪽 무릎이 제 기능을 못하기 시작했다. 그 뒤, 설악산을

뒷산처럼 드나들던 아버지의 단단한 허벅지는 젓가락처럼 얇아졌고 물건 하나 쉽게 들 수 없었다.

무릎 관절이 이상이 생긴 이유는 젊었을 적 군 생활을 할 때 군의관의 미흡한 처치 때문이었다. 축구를 하던 도중 오른쪽 정강이뼈가 심하게 부러졌고, 주먹구구식 일처리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유격 훈련이며 행군을 치러야 했다. 젊은 나이이었기에 아버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 줄도 모르고 살아 왔다.

망각은 인간에게 나쁜 기억을 잊게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잊게 하는 부정적인 속성도 가지고 있다. 자신의 정강이뼈가 제대로 맞추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아버지는 가장의 삶을 살았다. 불혹을 넘어서 하늘의 명을 알기도 전에 신체는 점차 망가져갔다. 물론 무절제한 아버지의 생활 패턴도 한 몫 했겠지만 말이다.

슈퍼맨이었던 아버지가 한쪽 다리를 절뚝이면서 다니게 되자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 여행을 갈 때도 등산을 할 수는 없었고, 자동차로 이동할 수 없는 곳은 애초에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 문턱이 조금이라도 높은 곳에 극심한 통증을 참으며 올라가는 아버지를 보면서 세월의 무상함을 어린 나이에 느껴버렸다.

더 이상 치료받을 수 없는 아버지의 무릎을 어떻게 치료할지 궁리하던 찰나에, 아파트에서 대대적인 공사가 벌어졌다. 소음 가득한 1층을 쳐다보니 계단 옆에 있는 휠체어 경사로를 조금 더 낮게 만들어 이동하기 편한 통로로 바꾸는 작업이었다.

예전 같으면 저런 쓸데없는 공사에 뭣 하러 돈을 쓰냐고 생각했겠지만, 상황이 달라진 지금은 매우 소중하게 느껴졌다. 이전에는 휠체어 경사로를 통해 올라가든 계단을 통해 올라가든 비슷한 정도의 통증이 느껴졌기에 무리해서 계단을 선택했던 아버지였다. 그러나 경사로가 조금 낮아지게 되자 굳이 계단을 올라가는 위험을 무릅쓰지 않아도 되

었다.

그때서야 배리어 프리 운동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장애인에 대한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동정의 시선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장애라는 것도 결국 상대적인 것이다. 100m를 13초에 주파하던 탄탄한 아버지의 다리도 이제는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결국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되었다.

따지고 보면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다. 나라에서는 어느 정도의 등급을 두고 구별을 하지만, 그것은 결국 행정적 절차일 뿐이다. 누군가에게는 내가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시각 장애로 보일 수가 있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결함이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장애인에 관한 여러 복지 정책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게 결국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아무리 강대한 사람도 나이가 들면 육체가 쇠락하고 병이 들기 쉽다. 혹은 불의의 사고를 통해 이전과는 다른 신체 상태를 맞이할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한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당신들의 천국’을 만들어주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회를 위해서 필요하다.

다리를 절뚝이던 아버지도 자신의 몫을 하기 위해 마트에서 생수를 사오는 역할을 자처하셨다. 휴대용 카트를 하나 구매해서 무리 없이 생수 열 두병을 사 오신다. 비록 통증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지만 참을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담당 의사 선생님도 적당한 수준의 운동은 필수적이라 하셨으니까.

아버지가 사 오신 생수로 미숫가루를 만들어 먹고, 베란다에 놓인 카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아무도 챙겨주지 않은 것 같지만, 사회는 오늘도 한 걸음 진보하였다.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생각은 한결 자유로워졌기에.